

2009년 취약계층 검진 현황

*** 취약계층검진은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견하는 결핵퇴치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집단시설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전염원을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성공적 수행하는 데 있어 찾아오는 환자 진료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환자를 발견하는 이동검진 사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협회는 1959년 처음으로 이동검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과 간접촬영을 통한 시간적, 물질적 경제성을 기반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대국민 홍보 등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한 취약계층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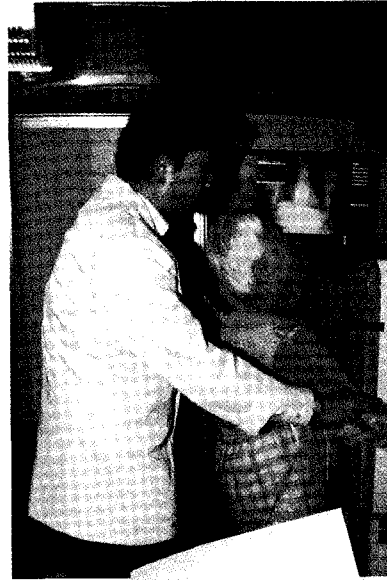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증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매년 수만 명을 검진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견해냄으로써 결핵퇴치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검진장비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검진대상에 노숙인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취약계층 환자발견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한 해도 검진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취약계층검진은 연간목표 88,800명보다 12.1%(10,778명) 초과한 99,578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총 3,134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소견자 발견율을 취약계층 대상별로 살펴보면 노숙인 9.83%, 오벽지 3.93%, 수용시설 1.96%, 외국인 1.52%, 다문화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숙인 결핵관리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보통 노숙인 검진의 경우에는 추구관리가 어려워 현장판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관계기관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노숙인 결핵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보건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저하되고 있는 듯하다. 상업적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검진대상자 동원 등 현장에서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원하는 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검진종목 확대 및 검진효율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검진 개선이 이루어지고 추구관리를 실시한다면 2010년에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발전된 사업을 전개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 유소견자 - 1차 엑스선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으로 결핵환자는 아니며 유소견자는 2차검진을 받고 결핵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받게 된다. †



대한결핵협회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이동검진 모습.